



EGLISE PROTESTANTE
UNIE DE FRANCE
communión luthérienne et réformée

Protestants en Pays d'Aix



교우, 방문객께

엑스 지역 개신교 연합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곳을 성전이 아닌 교회라 부릅니다. 성전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거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한 곳에 가뉘 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이 집은 그리스어로 '모임'을 뜻하는 'Ecclesia'에서 유래한 교회라 불립니다.

한때 이 건물은 엑스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보이는 명판은 우리 도시의 유대인과 개신교 공동체 사이 역사적 유대를 보여줍니다. 대문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일곱 가지 촛대는 우리보다 앞서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유대인들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보존해 놓은 것입니다. 이 촛대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배당 앞 탁자 위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책인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행하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식탁 주위에 모인 신자들은 서로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도록 초대됩니다.

탁자 옆엔 강단이 위치합니다. 목사 혹은 설교자는 이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읽고 강해합니다.

2층엔 성가대 반주, 묵상과 기도를 돕는 오르간이 있습니다.

이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매 주일 진행되는 예배 외에 500가정 정도 되는 엑스 개신교 공동체의 활동이나 교회가 환영하는 각종 단체와 연합들의 모임 등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 가운데는 상부상조 활동, 빈곤 및 차별 반대 운동, 실업자 지원과 합창 등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Eglise protestante unie du Pays d'Aix
4 rue Villars 13100 Aix-en-Provence 04 42 27 70 34
<https://protestants-aix.epudf.org/>



Protestants en Pays d'Aix



연합의 상징이 된 성전

300년의 역사

현재의 교회 건물은 1720년 페스트 이후 지어져 1789~1799년 프랑스 대혁명 때 파괴된 호화로운 갈리페 호텔의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뒤 2세기에 걸쳐 풍요로운 영적, 인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준공 당시의 기능: 프랑스의 유대인 공동체는 나폴레옹 제국 시대 168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실각 이후 공화국 체제에서 자수다 베다리드가 유대인으로선 처음으로 엑상 프로방스 시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30년 정도 후인 19세기 말엔 회당을 짓기에 이릅니다. 당대의 유명 작곡가 다리우스 밀로는 음악가 프란시스 풀링, 외교관 폴 클로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이 곳에서 그의 사촌 마들렌 알라티니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전쟁 동안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더이상 회당을 유지하고 운영할 금전적 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엑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프랑스 개혁 교회(ERF)와 협약을 맺고 1952년 회당의 소유권을 개혁 교회의 엑스 교구에 넘깁니다. 프랑스 개혁 교회는 1938년 설립된 복음주의 단체입니다.

쇼아(홀로코스트)의 기억

교회의 벽에 위치해 이 건물이 가진 유대인과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일곱 가지의 촛대, 즉 메노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소수 종교였으며 박해 받았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긴 여정을 말합니다. 1561년 장 칼뱅은 이미 엑스의 개신교 교회에 평안과 인내를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촛대는 나치 독일 지배 아래 가장 어두운 시간 개신교도와 유대인들이 가졌던 연대를 상징합니다. 1940년에서 1945년까지 엑스 교구를 담당한 앙리 마넨 목사는 밀(Milles)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로 호송되던 1928명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마넨 목사는 1942년 8월 6일부터 13일 사이 그의 아내와 함께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이 악몽의 시기에 대해 증언을 글로 남겼습니다.

생생한 연결고리

이 교회는 유대인과 개신교도가 공유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정문의 소박한 대리석 명판에 새겨진 극적인 시련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과거를 기념하는 유적이 아닌 현재를 희망으로 채우는 집입니다.

축복과 쇠신의 표시로, 이 건물이 보호한 두 유대인과 개신교 공동체는 번영했습니다. 1957년 4월 7일 성전 봉헌 이후, 2012년 프랑스 연합 개신교 교회로 거듭난 프랑스 개혁 교회(ERF) 엑스 교구는 알자스와 로렌 출신의 이주민들을 시작으로 새로운 신자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엑스 유대인 공동체는 1958년부터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을 맞았습니다. 이에 1971년 다리우스 밀로는 새로운 회당 개관을 주도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위해 함께 싸우며 유대인과 개신교도 사이 맺어진 유대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역사학자 쥘 이삭이 강조한 유대교-기독교 우정은 여러분을 형제애로 환영하는 이 집의 메시지에 힘과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